



[월개방성은 국민 알권리] 검색 차단 공기관 홈페이지 해커 자극 먹잇감 우려 04



Economy

코스피	1920.61 (+10.90)	코스닥	585.44 (+20.80)
금리 (미국 3년)	1.17 (+0.01)	환율 (원/달러)	1209.20 (-5.70) (8일)

“日 경제보복, 승자없는 게임” “역대급 파워폰, 성공 자신”

文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자유무역주의 주장했던 일본 국제사회서 신뢰 잃게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경제보복을 단행한 일본 정부로부터의 대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오전 10시30분부터 10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며 “일본이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적으로 고도의 분업체제 시대”라면서 “나라마다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고, 아닌 분야가 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논의를 위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된다. 일본은 국제사회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재차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한 나라이므로 이번 일본의 (대한민국 관련)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뉴욕 ‘갤럭시노트 10’ 언팩행사 고동진 삼성 IM부문장 간담회

디자인·S펜 등 새 경험 선사 5G열풍도 긍정적 영향 기대 점유율 확대 중심 수익 개선

“아무리 어려워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신은 공평하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은 사업 전망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혹독한 노력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매리어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동진 사장이 향후 사업 전략과 비전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3면)

고 사장은 갤럭시 노트10을 ‘역대급 파워폰’이라 칭하며 성공 가능성을 자신했다. 글로벌 스마트폰 성장률이 사실상 멈춘 가운데, 갤럭시 노트10이 새로운 경험으로 소비자들에 사야할 이유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의미다.

고 사장은 갤럭시 노트10 장점으로서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구멍을 더 작게 만들고 자리도 옮겼다.

크기가 서로 다른 2개 모델은 대형 스마트폰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삼성전자

에도 S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S펜이 제스처 등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갤럭시 노트10이 가진 중요한 매력으로 설명했다.

5G 열풍도 갤럭시 노트10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 침체 주원인이 교체 주기 장기화라는 분석과 함께, 5G 상용화가 가속화하면서 단말 수요를 다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 사장은 갤럭시 폴드에도 큰 애정을 드러냈다. 사용성 제고를 목표로 개발해 대형 스마트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며, 오랜 시간 개발에 매진한 개발자들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단, 갤럭시 노트가 자리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못박

았다. 단지 접을 수 있는 새로운 폼팩터라는 얘기다. 초기 물량도 글로벌 100만대를 채 넘지 못할 것이라며,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도 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 처음으로 임직원들에 어렵다고 말해야할 수도 있다며 큰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품질이 좋고 의미있는 혁신을 이룬 제품을 만들면 시장과 고객이 의외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점유율 확대를 중심 전략으로, 추후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사업 방침도 소개했다. 점유율은 생명, 수익성은 인격이라고 비교예시도 들었다.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 굴기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담담하면서도 강력하게 입장을 표했다. 일본 수출규제가 4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며, 중국 추격을 막기 위해 중급기종인 A시리즈에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고 사장은 “우리”라고 답했다. 시장 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만큼 더 많이 파는 게 최우선 과제라는 의미다. 고 사장은 이를 위해 스스로를 질책하고 겸손하게 바라보며, 특히 외부 컨설팅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미국)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日 규제 후 첫 허가품목은 ‘포토레지스트’

(반도체용 감광액)

업계 “삼성 요청으로 일부 허가”

일본이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허가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물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와 복수의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이 어제 수출을 허가한 극자외선(EUV) 생산라인용 포토 레지스트는 삼성전자가 요청한 것”이라면서 “아직 실제로 반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초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출

허가를 신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의 신청 건에 대해 일본이 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일부 허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업계 측 전언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물량이 수입되면 즉각 필요한 절차를 거쳐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경기도 화성캠퍼스 S3라인의 EUV 기반 최첨단 공정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엔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서 “일본이 어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EUV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삼성전자 IM 부문장 고동진 사장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D 멈추는 순간 日과 기술격차 더 벌어져”



(주)재원 신정욱 대표가 경기 군포에 있는 본사에서 주력 제품인 스테이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탈일본 도전 中企스토리 스테이지 개발·생산 (주)재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부품 국산화를 통해 ‘탈일본’에 도전하고 있는 혁신기업이 있다.

국내 관련 시장에서 일제가 70~8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일본의 비중이 절대적인 부품인 ‘정밀 스테이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구현해 나가고 있는 강소기업 (주)재원이 그 주인공이다.

재원 신정욱 대표는 지난 7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겠다고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중 한 곳이다. 신 대표를 8일 경기 군포에 있는 재원 본사에서 만났다.

2011년 창업해 10년이 채 안 된 재원이 개발한 조정밀 복합기능형 오픈인먼트 스테이지는 높이가 500원짜리 동전을 세워놓은 것과 비슷한 크기인 40mm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이 제품은 이번달 일본에 첫 상륙한다.

재원은 설립 이듬해인 2012년부터 스테이지를 일본에 수출했다. 국산 스테이지가 중주국인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재원이 처음이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을 만드는 글로벌 회사들이 국내에도 많았지만 신 대표가 일본을 먼저 공략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만든 스테이지가 좋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검증받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일본부터 갔다. 일본에 샘플을 넘기고 2년이 지나고부

터 본격 수출을 시작했다. 그전후 독일에도 수출할 기회가 생겼다. 일본, 독일을 거치고 나서야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 우리 제품을 찾기 시작하더라. (웃음)”

일본산 품질을 넘어서기 위해 신 대표는 지독하게 연구개발(R&D)에 집중했다. 매년 매출의 15~20%를 연구개발비에 썼다.

“가장 중요한 것이 R&D인데, R&D는 멈추면 안된다. 멈추는 순간 일본과 기술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도 인건비가 비싼 연구인력을 투입해 R&D를 해야 한다. 중소기업 CEO가 R&D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L6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